

<평생의 동역자>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8/6(주일) 설교 내용

사도행전 18:1-11

1.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부부인 이유 세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① 그들의 결정 기준은 복음이었습니다.
 - ② 충성된 동역자였습니다.
 - ③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 이 세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 나(또는 우리 가정)는 우리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동역하고 협력할만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영역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성광교회를 이루어 가는 성도이며,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큰 협력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사역 속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나누도록 해주세요.
이 질문의 핵심은, ‘내가 우리교회 사역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입니다.
목원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교사, 찬양대, 찬양팀, 주차, 주방, 차량운행, 미디어 등)

3. 우리는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생의 동역자가 있었듯이, 나(또는 우리 가정)는,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며 마음을 나눌 ‘평생 동역자’, ‘신앙적 친구’가 있습니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목장이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없을까요? 목자의 인도에 따라 그런 동역자를 만나고, 또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이 질문이 반드시 ‘우리 목장이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목장에서 ‘평생의 동역자’로 여길 만큼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목장에 국한하지 말고, 마음을 나눌 평생의 동역자, 신앙적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나눔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을 마친 후에는 우리에게 그런 평생의 동역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 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임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①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도록, ②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 주는 사람이 되도록
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후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